요한복음 19장 25-30절 말씀

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
그 어머니와
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
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
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
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
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

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
②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
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

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
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
③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
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
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
예수의 입에 대니

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
④ 다 이루었다 하시고
머리를 숙이니
영혼이 떠나가시니라